

지역 소식통

부안군,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실시

부안군은 하절기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지역에 친환경 방역약품을 사용하여 연무·연막소독, 유충구제를 병행하고 모기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부안군 보건소는 지난 4월부터 경로당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 화장실에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읍면 방역소독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수리를 통해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해충퇴치기 점검을 마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15일부터 해충 발생 우려 지역에 연무·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을 확대하여 모기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 예방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보건소, 아동·청소년 가족 치유프로그램 열어

고창군보건소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호안치유문화마을에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치유프로그램은 △배롱나무 향 따라 힐링 산책 △쪽옥 △아로마테라피(향기요법) △에코 놀이터(목공예) △크로케 게임 등으로 구성된 정신적·육체적 건강회복 프로그램이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가족의 일상회복,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대상자는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다른 가족 구성원을 만나서 가족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격려하는 시간이 됐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내년 국가예산 반영 막판 총력

고창군, 신활력 경제정책관 등 17개 부서장 참석 보고회... 부처 대응전략 등 점검

고창군이 22일 오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열고, 부처 대응 전략 등을 점검했다. 이날 노형수 부군수 주재로, 신활력경제정책관 등 17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각 부처 예산안이 막바지 조정 과정을 남겨둔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는 등 부처 설득논리 마련에 집중했다. 고창군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사업비 415억원 규모의 총 89건의 신규사업에 대응해 왔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

재된 고창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홍보를 위한 '심원면 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 건립사업(190억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비 550억원 규모 5건의 사업에 대해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또 대신면 회룡지구 가뭄재해위험개

선 정비사업(200억원) 등 총 사업비 670억원 규모의 13건의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다각도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농촌협약은 사업비 약 500억원 규모이며 2024년부터 57개년 사업으로 진행된다.군은 축사 및 폐교를 비롯한 각종 유휴시설과 유휴시설을 재정비해 농촌관광 활성화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으로 공모사업에 뛰어들었다. 6월 초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역사·문화·생태 도시 고창군의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맛·멋·향서로이음 로컬 모델’

정읍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시행계획 최종보고회

정읍시는 지난 19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학수시장을 비롯한 추진위원, 관련부서장 등 18명이 모여 정읍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총 사업비 70억 원이 들어가는 정읍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난해 5월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시민의견수렴, 정책토론, 중간보고, 추진위원회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안전감사도 추가로 진행하여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맛·멋·향서로이음 로컬그림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비전으로 계획하여 3개분야 10개 세부 사업을 탑재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6월중 농림축산식품부 자문회의와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47개년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 행정 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실정에 맞는 사업계획과 내실화로 농식품부 승인까지 잘 마무리하고, 정읍시 농촌지역의 신성장동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로컬푸드 행복장터, 동진수미 햇감자 특관행사 성황

부안고려청자휴게소, 행사 기간 행복장터 매출 약 1억원 달성

부안고려청자휴게소 상행선에 위치한 부안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에서 동진수미감자 수확철을 맞아 진행된 동진수미 햇감자 특관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특관행사는 부안군 대표 소득작물인 동진수미감자의 소비 촉진과 부안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서해안고속도로에 행사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여 고속도로 이용객의

관심을 끌었다. 4월 13일부터 40여 일 진행된 행사에 4,5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동진수미 햇감자 등 농·특산물 350품목을 판매하여 약 1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또한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 유기농 쌀 1kg 또는 감버거니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권오봉 축산유통과장은 "특관행사를

통해 타지역민에게 부안 동진수미 햇감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관내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화·고급화된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개장한 부안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가공식품부터 제철 신선 농산물까지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믿고 먹는 안전한 농산물 판매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 운곡습지, '세계 습지의 날' 맞아 보전 캠페인

고창군이 지난 20일 운곡습지사르습지와 고인돌공원 일원에서 '세계 습지의 날' 맞이 습지 보전 2차 캠페인을 열었다.

고창군 생태관광주인 사회적 협동조합(이사장 김대원)의 주관으로 습지의 보전·관리를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려는 취지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 4월1일에 1차 캠페인을 통해 조류충돌방지 스티커 부착, 운곡습지 내 새집 설치 활동 등을 추진했다.

이번 2차로 캠페인에선 운곡습지마을 소개 영상과 함께, 습지 보전을 약속하는 주민실천규약 낭독을 통해

습지의 중요성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세계 습지의 날 기념 합창 공연을 비롯해 누에고치 공예·도토리 방울 만들기 체험, 오베이폴 토요장터 등이 운영되며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한편, 운곡습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약 800종의 다양한 생물종으로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습지 및 국가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으로, 최근 봄 행락철을 맞아 사람들이 및 생태교육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말레이시아서 '고창 농특산물 시식·방문의 해 홍보부스' 운영

미리시 승격기념의 날 행사서 고창 농협별 대표 제품 전시... 현지 시민들 뜨거운 호응 보여

고창군이 지난 20일 미리시 승격기념의 날 행사에 참석해 '고창농특산물 시식행사'와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고창·해리·대성·선운산 농협 조합장들이 참석해 홍보부스를 직접 운영하며 각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제품 홍보에 열의를 보였다.

고창군은 고창 각 농협별 대표 제품을 전시하고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한국 제품에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미리시 시민들이 줄을 서서 시식을 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또한 고창군은 방문의 해를 맞아 개설한 전용 SNS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하고, '제10회 고창 모양상제' 등의 정보가 담긴 영어 지도를 배부하며 다양한 관광객이 고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제무호도시를 맺고 좋은 기회로 승격기념일이라는 큰 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고창군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준 미리시에 감사하다"며 "고창 농특산물이 국제무대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나아가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2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6월 1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정상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재난에 맞선 선제적인 대응과 사업 추진을 촉구했고, 서항경 의원은 도시가스 보급가능지역의 로드맵 수립 및 예산을 확대,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23일부터 29일까지 주요 사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0건에 대하여 안전감사가 있으며, 30일부터 3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고,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